

총선 격전지

장관 출신만 2명...경쟁률 신기록

광주 북구 갑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통합민주당에서만 무려 12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한나라당 3명 등 나머지 후보 6명을 포함하면 출마 예정자만 18명으로, 18대 총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현역인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전직 장관과 병원장, 시의회 의장, 기자 등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예비후보들이 선거 초반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으로,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지역민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현역의원을 대항으로 실시된 중앙당 차원의 여론 조사에서도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장병완·김동신·임현모씨 등 18명 대격돌

■광주 북구 갑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강기정, 국영욱, 김동신, 김재두, 김재두, 반명환, 송두영, 오형근, 이만영, 임현모, 장병완, 조기선, 서경복, 정필중, 이기연, 이봉준, 최한규, 김경진.

그러나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중앙 정부에서 쌓은 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앞세워 매서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병완 전 장관은 30여 년간 정부

기획·예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며 '예산확보의 적인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장관 재임시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확보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지

원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통합민주당 내 유일한 국방·안보분야 전문 가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활약한 임현모 광주교육대 총장과, 대선 경선 당시 순화규 캠프에서 활동한 송두영 전 한국일보 기자도 당과 지도부에 대한 기여도를 들어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은 전문성과 참신성을 내세워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으며, 김재두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반명환 전 광주시의회의장, 조기선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이만영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등 '유력 후보'들도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경복 대동가스 총전소 전무이사를 비롯 한나라당 소속으로 공천을 신청한 후보 3명과 함께, 창조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진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선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4·9 총선 현장

검진 및 안전장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

김영룡 "공군 탄약고 이전 해결하겠다"



○~김영룡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7일 서구청·교육청 등을 잇따라 방문, 공무원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표심잡기에 분주.

김 후보는 또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공군 탄약고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당부.

서정성 '우리장 담그기' 행사 참석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7일 남구 대촌동 압춘마을에서 열린 '우리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과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바둑민심잡기에 주력.

서 후보는 이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남구를 전통문화 전승지대로 지정, 가족·단체 체험객들이 정을 나누고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

장흥호 광주 서구 을 선거사무소 개소



○~장흥호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표심 공략을 본격화.

장 후보는 이날 "포퓰러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F1 특별법)이 자동 폐기됐다"면서 "낙후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만큼 2010년 F1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

오형근 '광주 U대회 서명운동' 동참



○~오형근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기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

오 후보는 이날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서명한 뒤 "하계 U-대회는 1조4천억 원대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며 "광주시 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 70여명 "민형배 지지"



○~간간·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 70여명이 27일 민형배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 후보는 언론, 시민단체 및 청와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낼 능력있는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홍행·김지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원 "서남권 특별법 통과 환영"



○~박지원 목포시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박 후보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목포시민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일관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남권이 내실있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

지병문 "문화도시 차질없이 추진돼야"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오는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책임있는 큰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민심잡기에 돌입할 계획. 지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견제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섬기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

강운태 "한류문화산업 건립하겠다"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7일 '남구에 한류문화산업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문화복지공약을 발표.

강 후보는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상품의 경쟁력은 무한하다"며 "한류문화산업단지는 게임, 만화,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문화·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조영택 호남대 방문 젊은층 여론 수렴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7일 대학생 등 젊은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조 후보는 이날 호남대를 방문. 이현철 총장과 총학생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등록금 및 지방대 취업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주말 젊은층이 즐겨 찾는 상무지구 호프집과 영화관 등을 돌며 표심잡이기에 주력할 예정.

임내현 환경미화원들과 '만남의 시간'



○~임내현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7일 북구 환경 미화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수렴. 임 후보는 이날 "환경미화원들은 도로를 청소할 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연일 새벽 근무로 지쳐 있다"면서 "국회에 입성, 정기적 건강

'인물론·개혁론'...신인들 거센 도전

광주 북구를

광주 북구를 총선 구도는 김태홍 현 의원의 수성과 인물론·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입지자들의 경쟁으로 압축된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현역인 김 의원은 지역구 민생살피기 행보를 강화하며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다른 입지자들의 '새 인물론' 주장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 3선 고지에 올라야 중진 정치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임내현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워 여의도 입성을 버리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동영상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답지

김태홍 수성에 임내현·김재균·이형석 등 도전

■광주 북구 을 출마 예정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김용익, 김재균, 김태홍, 이형석, 임내현, 최경주, 김현국, 김현정, 고수일, 양필문.

않은 소탈한 성품이 민심에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다. 김재균 전 북구청장은 민선 2·3기 8년간의 북구청장을 지낸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북구청장 시절 주민들을 위해 일했던 열정과 행정력, 북구 구석 구석을 가

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문화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도 '할 말을 하는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바다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로 다져놓은 지역 조직에

중앙 정치권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앞세워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경주 민주당 시당위원장도 탄탄한 조직력과 특유의 특색이 최대의 강점이며 지난 17대 총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계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특히 양당 합당으로 한배를 타게 됐지만 광주의 구 민주당 지분을 감안하면 공천을 따내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공보이사, 광주시의원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던 김용익 전 광주시의원은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를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현국 당협위원장이 여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는 시장 북구여성위원장을 지낸 여성정치인 김현정씨가 노동층을 지지기반으로 표밭잡이를 하고 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Marathon 2008. Features a runner, a large crowd, and various sponsors like Daewoo, SK, and others. Text includes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and '2008 KWANGJU 3·1 MARATHON'.